

한국에서 림프부종에 대한 비수술적 재활치료의 역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황지혜

History of Nonsurgical Management for Lymphedema in Korea

Ji Hye Hwang, MD

Department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서론

국내에서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림프부종'이 진단, 평가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95년 림프부종 전문 진료가 열리고 체계적인 비수술적 재활치료가 도입된 후, 2004년 대한림프부종연구회가 창립되고, 이후 2010년 대한림프부종학회로 발전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활의학과 의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의사들과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의료인들이 다학제적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종설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림프부종이 현재와 같이 다학제적 진단, 평가와 치료를 요하는 확실한 질환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림프부종 비수술적 치료의 표준이 되고 있는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CDT, CDP, CDPT 또는 complex lymphedema therapy, CLT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의 국내 도입과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의 문제점들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1. 한국 림프부종 진료의 역사

1995년 10월, 혈관외과 이병봉 교수의 제안으로 혈관외과 김동익, 재활의학과 황지혜, 핵의학과 최준영이 모여 국내에서 최초로 림프부종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삼성서울병원 림프부종 다학제 클리닉"이 개설되어 림프부종을 의학적 질환으로 재조명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당시 '림프부종'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도 일차성 또는 이차성 원인에 관계없이 발생 빈도가 흔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여겨져, 진단 자체가 안되거나 진단된다 해도 부종에 대한 일반적 치료 즉, 상하지 거상이나 단순 압박스타킹이나 붕대감기 권유 등만이 단편적으로 시행되었고 드물게는 모험 수준의 일부 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정도로, 의학적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었다. 림프부종 클리닉은 개설 당시, 혈관기형클리닉과 같이 특수 혈관질환 클리닉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혈관질환 측면에서의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두고 진료가 행해졌고, 이후 재활치료와 간호 관리 측면으로 진료 내용이 확대되었다.

1996년 1월 삼성서울병원 혈관센터 주최로 국내 최초로 림

► Received: April 29, 2021, ► Accepted: May 12, 2021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 Hye Hwang**, MD, PhD
Department of Physical & Rehabilitatio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1, Irwon-ro, Gangnam-gu, Seoul 06351, Korea
Tel: +82-2-3410-2816, Fax: +82-2-3410-0052
E-mail: hwanglee@skku.edu

프부종이라는 단일 질환을 위한 "림프부종 세미나"가 열렸고, 2004년 2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주최로 "삼성림프부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치료사 핸드 온 워크샵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 11월 27일 대한림프부종연구회가 창립되었다. 2007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재활의학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 Rehabilitation Medicine)에서 림프부종 치료 워크샵을 열어 이 분야에 앞서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후 대한림프부종연구회는 2010년 11월 대한림프부종학회(Korean Society of Lymphedema)로 발전되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인 치료 관련 강연과 핸드온 교육이 학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 당시 혈관질환의 한 종류로서의 특성이 강하던 림프부종은, 원인으로 암 치료 및 암 자체로 인한 이차성 림프부종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점차 진료 영역이 확장되어, 현재 많은 병원들의 재활의학과에서는 암재활(cancer rehabilitation) 분야의 주요 클리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림프부종 비수술적 치료의 국제적 태동과 역사적 배경

림프부종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의 기초는 림프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882년 호주의 외과의사 von Winiwater는 림프부종 부위의 거상, 압박치료 및 마사지법 등을 치료에 사용하며, 이후 현재 림프부종 치료의 초석을 세웠다. 그 이후 1936년 덴마크의 치료사인 Vodder에 의해 도수림프배출법(manual lymph drainage, MLD)이 창시되었다. 1969년 독일의 Asdonk와 Vodder부부에 의해 치료사 양성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고, 1976년 Foldi 등과 함께 독일 림프학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Foldi는 Vodder의 마사지법을 보완하며 림프부종 치료법을 한층 체계화하여, 1981년 도수림프배출법(MLD), 의료적 압박치료(medical compression therapy; short-stretch bandaging, compression stocking and garment), 치료적 운동(remedial exercise) 및 피부관리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CDT, CDP; complex lymphedema therapy, CLT)를 개발하여 현재 림프부종 치료의 국제적 표준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림프부종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호주에 파급되기 시작하며, 점차

미국과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3. 한국 림프부종 비수술적 재활치료의 역사

1) 복합림프물리치료의 도입과 발전

상하지 '부종'에 대한 일반적인 재활물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압박치료, 특히 압박펌프치료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 복합림프물리치료가 도입되어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한 체계적 집중치료가 시작된 것은 1996년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가 처음이었다.

해외 연수를 통해 도입된 림프부종 비수술적 치료법은 삼성서울병원 김성중치료사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자체 개별 교육 및 대한림프부종연구회와 이후 대한림프부종학회를 통한 치료사 교육과 독일, 미국의 교육기관(Foldi clinic, Vodder school, Klose training)에서의 기관별 연수를 통해 국내 많은 치료사들과 의사들에게 교육되었다. 몇 년 후인 1998년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에 림프부종 치료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2년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2003년 국립암센터, 2005년 분당서울대학병원 및 2008년 서울아산병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암 전문 진료가 독립된 암센터 또는 암병원의 개설로 더욱 확장되면서, 전국 각 대학병원 및 암센터 내 대부분의 재활의학과들에 림프부종 클리닉과 치료실이 개설되었다. 2015년 이후 현재, 3차 전문의료기관뿐 만 아니라,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도 암환자 진료에 활성화되면서 림프부종 치료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수술적 재활치료가 림프부종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하는 의사 또는 치료사가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적절한 시행 방법을 교육받아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동안 경험을 통해 트레이닝 되어야 한다.

이제 림프부종의 진단과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 분야 중, 암재활 분야에 포함되어 정규 수련 분야가 되었고, 다수의 물리치료학과에서도 교육과 실습이 시행되게 발전하였다.

2) 림프부종 비수술적 재활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도입

비수술적 재활치료법들 중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의료적

압박치료이다. 치료적으로 적절한 강도의 압력과 말단부부터 순차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 테크닉이 우선적이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압박 스타킹 및 압박붕대 등의 물품들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국내에는 정맥질환 치료용 저압력 스타킹만이 수입되어 치료재료로 사용되고 있었고, 저탄력붕대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림프부종 치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고압력의 상지/하지 압박 스타킹과 다중저탄력붕대법(multilayered short-stretch bandaging)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붕대와 압력패드 등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림프부종 치료가 1970년대부터 의료수가로 인정된 독일의 제품들이 표준 치료재료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압박펌프 장비 또한 1980년대부터 재활치료 장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압력이 순차적으로 겹쳐서 가해지는(sequential pneumatic compression pump with multi-chamber overlapping sleeve) 림프부종 치료용이 아닌 단실(single-chamber)의 저압력 펌프장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림프부종 치료용 압박펌프 장비 또한 국내 림프부종 치료의 확장 및 발전과 함께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는 비록 독일에서 제작되기는 하였지만, 필요한 환자에게는 압박 스타킹 맞춤제작도 처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림프부종 비수술적 치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기에, 국내에도 다양한 압박 스타킹, 특히 씨케이드(Circaid[®]), 오토핏(AutoFit[®]) 등의 상/하지용 압박 의복(garment)과 2세대 압박펌프 장비 등이 소개되었고, 국산 펌프장비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전까지 의료재료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던 상하지용 압박 스타킹과 압박 붕대 재료들이 드디어 급여 적용을 받게 되었고, 압박가먼트도 부분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의료진과 학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4. 현재의 문제점과 제언

이제 림프부종 특히 암치료 연관 이차성 림프부종은 더욱, 발생 초기부터 임상적으로 또 영상학적으로 진단되고 주기적으로 부피 변화, 증상과 기능장해가 평가되며 비수술적 재활치료를 근간으로 적절한 환자군인 경우 초미세수술법도 고려되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한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3차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와 재활치료실 대부분이 림프부종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게 되었고, 재활병원이나 암환자 요양병원에서도 림프부종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확장되고 발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적절하지 못한 낮은 의료수가이다. 이로 인해 다른 비용으로 대체 적용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림프부종 재활치료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치료사의 숙련 정도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평가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게 충분히 교육하며 진료하지 못하는 의사 진료의 문제이다.

맺음말

림프부종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의료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다. 림프부종 환자의 평생 동안의 여정(care continuum)에 비수술적 재활치료는 제대로 끼우기 시작해야 하는 첫 단추이자 치료의 뼈대이다. 림프부종 전문 의료진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의 현재 이환 정도와 또한 예후까지 정확히 예측하여, 환자에 맞는 치료법과 정도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또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여년 전, 림프부종 치료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적용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임상, 연구 및 교육면으로 노력해 온 전문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